

金海會峴里 貝塚出土 硬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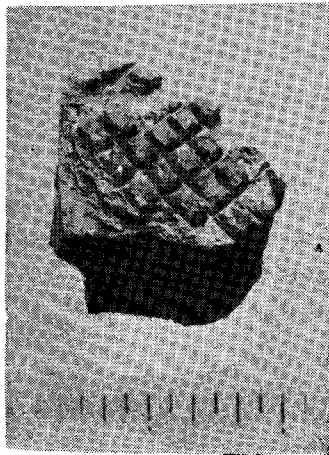
土製品에 對하여

崔 夢 龍

筆者는 1968年 가을 濱田耕作氏와 梅原末治氏가 함께 發掘하여 炭化米와 함께 貨泉等を 發見해서 原史時代의 代表的인 遺蹟地가 된 現行政區域上 金海 會峴里貝塚(史蹟2號, 1933年 8月 27日 指定)에서 뜻하지 않게 여기에 紹介하고자 하는 硬質土製品一點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遺物을 보면 現在 縱 4.5cm 橫 4.6cm 高 4.2cm의조 그마한 破片에 지나지 못한다. (插圖 1) 그런데 前面과 後面을 보면 前面은 器壁의 線과 約 45° 어긋나게 縱 5行 橫 6行的 거의 直斜角形에 該當하는 格子文의 文樣을 새겨 놓았는데 各文樣은 거의 똑같지 않으나 大略 0.5×0.6 cm 높이 0.2~0.3cm이며 文樣은 現在 18個가 보이고 있다.

또 背面에는 前面보다 더 큰 文樣이 2個가 縱으로 나오는데 그各各의 크기는 上部가 0.5×0.7cm 높이 0.4cm이며 下部는 0.6×1.7cm 높이 0.3cm의 平行四邊形의 形態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幅 0.2cm 長 0.5cm 깊이 0.3cm의 橢圓形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色調를 보면 前面과 器表面은 밝



은 紅色을 보여 주며 後面과 器壁內는 不完全 燃燒의 탓인지 짙은 黑色에 가까운 黑青色을 보여주고 있다.

形態는 插圖 1과 사진 1에서 보는바와 같이 一破片에 不過하지만 復元해서 생각해 본다면 本來 四隅가 둥글게 돌아간 一種의 抹角方形의 形態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렇게 놓고 다시 全體 모양을 본다면 前面과 背面에 크기가 各各 다른

寫眞 1 金海貝塚出土打印具

文樣을 凸凹의 形態로 새겨 놓고 있으며 仔細히 보면 精選된 胎土를 使用하여 型을 뜬다음 굽기전 일일이 彫刻刀같은 것으로 새겨 넣은것 같다.

註 (1) 大正九年度 古蹟調査報告古書 第一冊 (金海貝塚發掘報告) 1920

그런데 이러한 예가 筆者의 管見上 初出이기 때문에 比較할만한 資料가 없다.

그래서 于先 여기에서 이 資料를 通하여 본 두가지 觀點에서 記述하고자 한다.

첫째 前面과 後面에 나타난 凸凹上의 格子文의 文樣이다. 이것을 金海土器片의 器表面이 나타나고 있는 格子文과 比較해 볼때 틀림없이 打印具(Imprinting Implement)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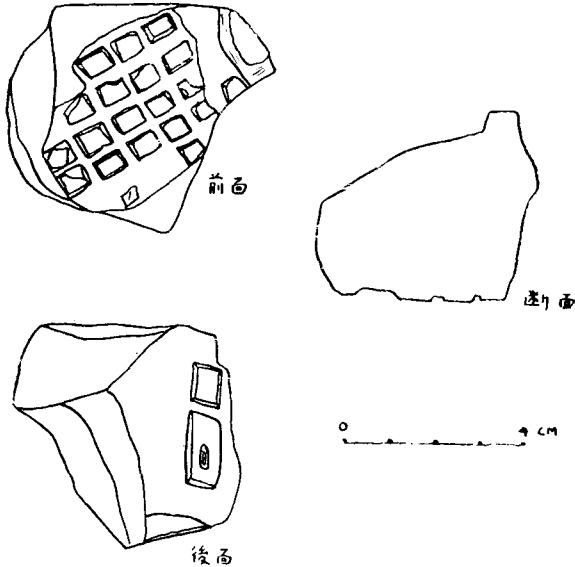


插圖 1 金海貝塚出土打印具實測圖

우리는 金海土器의 器表面에 施文되어 나타나고 있는 繩文 乃至 格子文等이 木片(寫眞 2 參照)에 그와같은 文樣을 새겨 器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두들겨서 생긴 裝飾이 主가 아닌 副次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막연히 推測하여 왔으나⁽²⁾ 實際 그와 같은 資料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現在남아 있는 것이 없어 確實한 것은 論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와같은 硬質土製品이 打印具라면 기쁘기 그지없는 事實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金海貝塚出土例와 비슷한 凸凹上의 格子文을 새긴 形態가 華東과 華南地方에서 新石器後代부터 起原하여 西쪽으로 Indo-

china 馬來半島, 印尼群島로 해서 印度洋을 거쳐 Madagascar, Africa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東으로는 太平洋을 經由하여 Melanesia, Polynesia를 지나 最終的으로 中·南美에 傳播되고 있고 分布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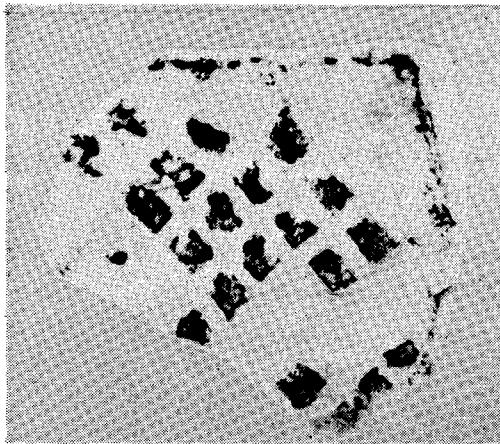


插圖 2 同文樣拓本

보아 環大洋地區를 形成하고 있는 “樹皮布石打棒”(stone bark cloth beater)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나 여기 地區에서 出土하는 “樹皮布石打棒”(寫眞 3)은 形態上으로 金



寫眞 2 土器 製作光景

海貝塚出土例와 비슷하지만 質이 時代와 地方的差異로 因해 木製·石製·銅製 심지어는 象牙製에 이르기까지 多様な 面을 보이며 또 重要한 것은 이것이 前者推測의 打印具의 例가 아니라 現在 太平洋諸 群島의 原始人들에 보이는 바와같은 Tapo-cloth의 粗質織物 을 만들 爲해 特

(2) 藤田亮策「朝鮮考古學研究」(京都 高桐書院 1948)p. 135 及 金元龍「韓國考古學概論」(1966. 8. 서울)p. 52

(3) 凌純聲(Shun-Sheng Ling) “華南與 東南亞及中美洲의 樹皮布의 石打棒”(Stone bark Cloth Beater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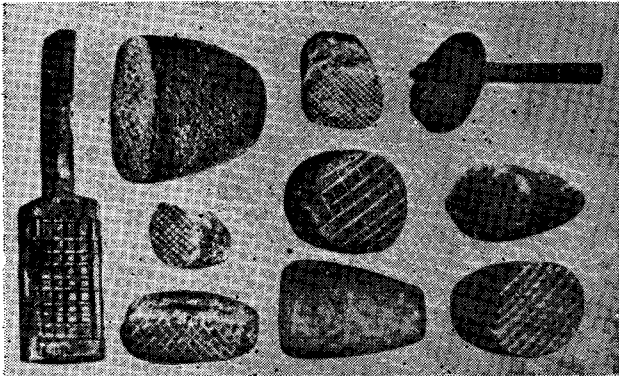
殊한 나무 껍질을 벗겨 그 껍질에 무두질을 加하기 위한것이며 쏘려 다른 機能을 보여준다 하겠다.

即 하나는 技術上 窯業에 必要的인 “打印具”이며 後者는 紡織에 必要的인 “樹皮布打棒”의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 問題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事實 그當時에 우리나라에서도 織物을 짜 옷감을 만들줄 아는 技術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斷定할 수 없다. 왜냐하면 新石器時代 부터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土·石製의 紡鍾車(spindle)가 金海貝塚에서도 多量으로 出土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또 華南地方의 文化影響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即 韓國에 있어 出土하는 有溝石斧의 存在가 그것을 強力히 示唆해 주고 있다 하겠다.⁽⁵⁾

만약 그렇다면 金海貝塚出土例의 境遇 “樹皮布石打棒”의 影響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木製·石製의 打棒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되며 木製의 境遇 使用上 쉬달아 없어 지거나 또 부패할 可能性이 있어 現存하는 資料는 없고 남아있게 된다면 石製로서 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가지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金海貝塚出土 硬質土製品을 여러가지 土器의 器表面上에 베물어져 있는 格子文의 文樣과 比較하여 于先 打印



寫眞 3 樹皮布木石打棒의 例

具로서 推論해 보기도 하나 이런 例가 우리나라에서 初出이기 때문에 이 以上의 推論은 禁하나 後日 資料의 增加가 이루어져 華南系統의 “樹皮布 石打棒”과의 聯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을 期待하는 바이다. (1972.6)

South China, Southeast Asia and Central America)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集刊 1962. 臺灣·南港 195-219pp.

(4) 前掲書(註2) 圖版25

(5) 金元龍 “韓國栽稻起源에 關한 一考察”, 震檀學報 25.6.7合併號 1964. 12. pp306.